가정예배 자료집

2023.10·11·12

영락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FAMILY DAY

<다음세대 신앙형성을 위하여>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가정예배 서약서

가정예배 드리기로 서약해요!

서약서

우리는 가정예배 공동체로서 가정예배를 실천하기로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은 교회의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둘째,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약자:_____ 서명

목차
Contents

10·11·12월호 소개 - 다음세대 신앙형성을 위하여	04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06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07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40주	10.01 ~ 10.07	모든 이를 위하신 예수님	10
41주	10.08 ~ 10.14	믿음을 위한 기도	12
42주	10.15 ~ 10.21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14
43주	10.22 ~ 10.28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	16
44주	10.29 ~ 11.04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18
45주	11.05 ~ 11.11	힘든 기도	24
46주	11.12 ~ 11.18	담대한 그리스도인	26
47주	11.19 ~ 11.25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28
48주	11.26 ~ 12.02	부활의 소식을 믿으며 살아가요!	30
49주	12.03 ~ 12.09	아빠 아버지	36
50주	12.10 ~ 12.16	하나님의 위로	38
51주	12.17 ~ 12.23	가장 중요한 사실	40
52주	12.24 ~ 12.30	깨끗하게 하십니다.	42
53주	12.31 ~ 01.06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	44

다음세대 신앙형성을 위하여
10-12월호를 시작하며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남짓 교회에 머물게 하는 것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형성되거나 성장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안은 사실 가정 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삶에서 더 오랜 시간 머무는 곳, 보다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환경은 단연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신앙형성과 신앙성장을 위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탈종교화 시대 흐름으로 아이들의 마음에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신앙도 가정에서 자녀의 유아기부터 성경적 세계관이 형성되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극복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일상이 이전 어느 때보다 바쁘다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가정입니다. 게다가 파편화된 관계로 교회 공동체가 제 기능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겪는 신앙성장의 어려움은 더 이상 해체되지 않는 가정이라는 가장 견고한 공동체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신앙교육의 장에서,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내용으로 한다면, 이 싸움도 싸워볼 만 할 것입니다. 지난 3분기 동안에도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가 매일 매일을 오이코스 말씀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다음세대가 속한 모든 가정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로 모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3년의 마지막 패밀리데이를 시작하는 영락의 각 가정들이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가정에서의 영적 싸움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약성경 말씀으로 예배하기

2023년의 네 번째 패밀리데이는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전반을 다루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이야기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참 복된 소식이 되는 아름다운 이 말씀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더 깊은 은혜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신약성경은 크게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권의 복음서, 초기교회의 탄생과 복음전파의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서 사도행전, 초기교회 신앙의 기준과 지침이 되었던 여러 편지들과 요한의 묵시를 담은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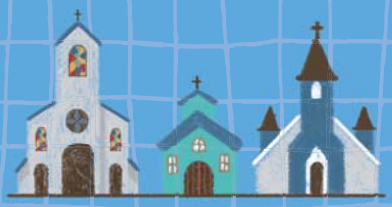
먼저 10월 한 달 동안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 말씀으로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복음서들의 기록 목적은 독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말씀으로 예배하는 10월 한 달 동안 패밀리데이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초기교회 이야기를,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영적 지침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싸워온 믿음의 문제들을 묵상함으로 각 가정이 영적으로 더 단단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의 다섯 주는 각각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후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각 편지글을 통해 전해지는 다양한 주제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배하는 각 가정에게 깊은 묵상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세 달은 한 해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포함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더 뜻깊은 한 해의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4분기도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온 가족이 말씀 따라 계속 행진하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준비해요



가정예배를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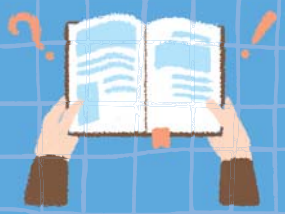
1.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2.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3.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4.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1.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ebook.youngnak.net/?cat=26)
2.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4.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가정예배 에티켓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과 함께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달의 찬양 〈내 마음의 한자리〉 11p

2 말씀읽기 (개역개정)

한 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습니다.
가족이 다함께 또는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말씀읽기 - 민수기 12:3

3 생각하기

말씀을 중심으로 주어진 질문에 답해봅니다.
가족의 생각과 다짐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하기

4 말씀듣기

말씀의 배경을 함께 알아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내용을 읽어주며, 다른 가족은 경청합니다.

말씀듣기

5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며 기도로 마칩니다.
가족의 기도제목을 적고 주어진 기도제목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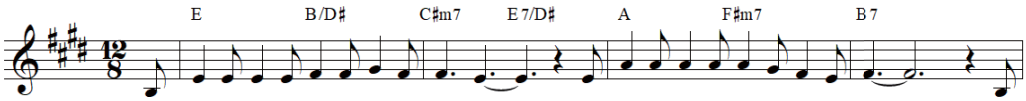
10 OCTO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임시공휴일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종교개혁주일	30	31				

이달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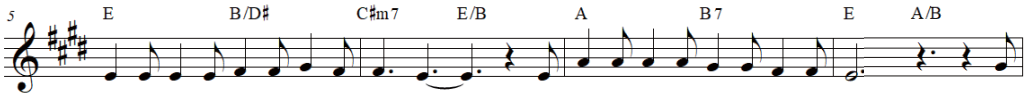


1.그 선한힘에고요히감 싸 여 — 그 놀라운평화를누리 며 — 나

2.지 나간허물어둠의날 들 이 — 무 겁게내영혼짓눌러 도 — 오

3.주 께서밝히신작은촛 불 이 — 어 둠을헤치고타오르 네 — 그

4.이 고요함이깊이번져 갈 때 — 저 가슴벅찬노래들리 네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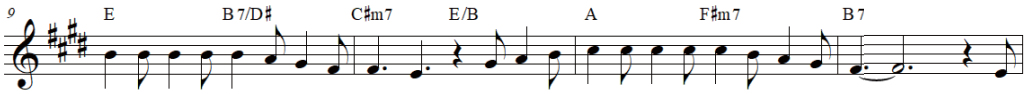


그 대들과함께걸어 가 네 — 나 그 대들과한해를여 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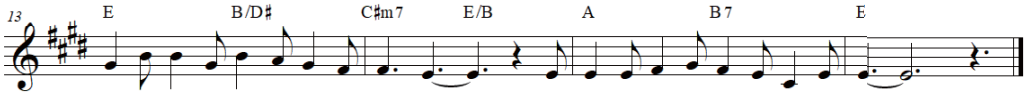
주 여우릴외면치마 시 고 — 약 속 의구 원을이루 소 서

빛 에우리모두하나 되 어 — 온 누 리에비추게하소 서

시 하나가되게이끄 소 서 — 당 신 의빛이빛나는이 밤



선 한힘 이우릴감싸 시 니 믿음으로일어날일기대하 네 — 주



언 제나우리와함께계 셔 — 하 루또하루가늘새로워 —

10/1-7
1주 가정예배

모든 이를 위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1:12-17

이달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9P

말씀읽기 - 마태복음 21:12-17

12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컴을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14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15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16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힘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생각하기

Q1. 교회는 무엇을 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지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Q2.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듣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나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 유대인들은 3대 절기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흠 없는 제물을 드리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이들을 위해 성전 밖 이방인의 뜰에서는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물로 사용할 동물의 값이 너무 비싸진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물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악용하여 장사꾼들이 값을 올린 겁니다. 제물에 사용할 동물 값이 너무 비싸지자 사람들은 집에서 흠 없는 동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집에서 가져온 동물처럼 보이는 것은 제물로 드리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먼 길에 동물을 데려가기 어렵고, 당장 제물을 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깥 뜰 장사꾼들에게 동물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합하다고 했던 동물을 장사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싼 값에 되팔았고, 그 동물을 제사장이 이번에는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사꾼과 제사장의 부당한 이 연결고리로 불의하게 돈 버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며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떠한 곳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막 11:17이라 일컬어지는 곳입니다. 그 당시 신체의 불편함이 부정함으로 여겨져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맹인과 저는 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시며, 누구나 예배에 나아올 수 있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지상에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모든 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의 많고 적음이, 신체의 불편함이, 다른 그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 모든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반대로 혹시 내가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면, 회개하며 모두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해되는 것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정만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웃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8-14
2주 가정예배

믿음을 위한 기도

마가복음 9:24

이달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9P

말씀읽기 - 마가복음 9:24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생각하기

Q1.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있을까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을까요?

Q2.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 봅시다.

말씀듣기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때론 어려운 상황 앞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도 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약한 믿음을 고백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올바른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하십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고백이 시작된 그때에 귀신들린 아이 아버지의 삶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할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와 같이 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약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약한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할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를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가정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질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도 찾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곧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힘입어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항상 함께해 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15-21
3주 가정예배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8, 10

이달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9P

말씀읽기 - 누가복음 6:8, 10

08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10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
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생각하기

Q1.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셨나요?

Q2.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성경 구절을 나눠보세요(인터넷 혹은 핸드폰 성경에서 "사랑" 등으로 검색해 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나누셔도 좋습니다.).

말씀듣기

예수님을 믿으며 말씀을 지키고자 노력하다가 종종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잊은 채 성경에 적힌 글자 그대로 지키고자 힘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율법에 담긴 뜻을 놓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에 앞장섰고, 율법을 어기면 죄를 지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일을 하려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초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며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십니다. 십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의 담긴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에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노예 살이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쉼을 누리며 참 생명을 주는 신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은혜를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믿음의 열심을 내다가 나도 모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변해버린 내 모습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우리가 말씀에 담긴 뜻을 잊은 채 율법만을 쫓거나 말씀을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면,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를 누리며 이웃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22-28
4주 가정예배

예수님을 영접한 감격

누가복음 19:2-3,5,6,8

이달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9P

말씀읽기 - 누가복음 19:2-3,5,6,8

02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03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0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06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0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생각하기

Q1.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나요(=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믿나요)?

Q2.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말씀듣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에게 세금을 거둬,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제국에게 바친 사람입니다. 이 세리들은 사람들로부터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습니다. 더 많이 거둔 세금만큼 자신이 가져갔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삭개오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누구보다 더 많은 돈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었습니다. 모두가 삭개오를 비난했고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과 다르게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심지어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감격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가까이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니! 삭개오는 들뜬 마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삭개오에게 다가왔고, 삭개오는 하나님 나라를 두 팔 벌려 껴안았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때까지 속여 빼앗은 것은 네 배로 갚겠습니다!" 죄인에게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니 삭개오의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로마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가정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을 두 팔 벌려 끌어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만을 위한 성을 쌓고 자신만을 지키고자 하는 세상 가운데, 이웃을 둘러보며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생명이 흐르는 주님의 나라를 비추실 것입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잘못된 삶을 벗어던지고 앞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셨듯이 우리 가정도 주의 나라를 비출 수 있는 믿음의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0/29-11/4
5주 가정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요한복음 11:1-4

이달의 찬양 〈선한 능력으로〉 9P

말씀읽기 - 요한복음 11:1-4

01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0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0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04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생각하기

Q1. 나 자신이,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Q2.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나요?

말씀듣기

우리는 살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종종 경험합니다. 나를 심하게 놀리거나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학교 공부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 자신,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병에 걸려 아파할 수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가족에게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3남매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자신들의 오빠 나사로를 치료해 달라고 말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며 나사로를 향해 바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병으로 인해 죽고 말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내십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님이 병은 물론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우리도 처음부터 나에게 힘든 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고통스러운 일과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타남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도 결코 그분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기다립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은 것임이 드러날 테니까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질병과 고통,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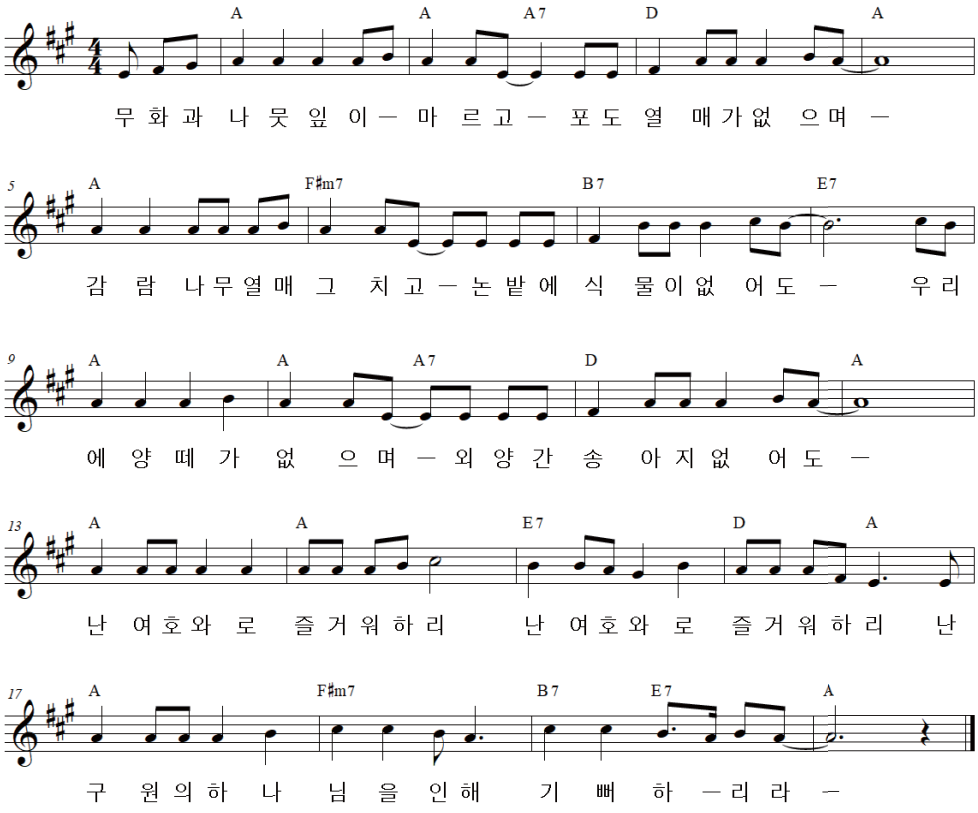
11 NOV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추수감사주일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달의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1/5-11
1주 가정예배

힘든 기도

사도행전 7:54-60

이달의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23P

말씀읽기 - 사도행전 7:54-60

54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생각하기

Q1.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눠보세요.

Q2.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해 나누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보세요.

말씀듣기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의 고백을 기록합니다. 이 고백문에는 유대인들이 분노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부터 천 년 이상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며 이스라엘을 돌보신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니!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여기며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전과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은 죽임 당하는 순간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위협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어느 나라는 예수님을 믿으면 괴롭힘과 협박을 받으며 심지어 죽임 당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인 우리는 이런 괴롭힘 당하는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스데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스데반을 본받아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조금씩 스데반과 같이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스데반이 예수님을 따라 기도했듯이, 우리도 해를 가하려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주님,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셔서 더 이상의 핍박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12-18
2주 가정예배

담대한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3:11

이달의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23P

말씀읽기 - 사도행전 23:11

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

생각하기

Q1. 무엇이 나를, 우리 가정을 두렵게 만드나요?

Q2.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듣기

바울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요. 이때로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나아가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열심히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에는 장애물이 참 많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을 부단히도 괴롭혔습니다. 돌을 던지기도 했고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리고 목마른 날은 허다했고, 배가 부서져 바다에 빠진 날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재판이 끝나면 바울은 형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예수님은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재판 때에도 재판이 끝난 뒤에도 한결같이 담대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저버리신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나 불안할 수 있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 곁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저희 가정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굳게 믿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를 놓지 않고 포기 않으시는 주님을 든든히 붙잡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19-25
3주 가정예배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로마서 14:1

이달의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23P

말씀읽기 - 로마서 14:1

0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생각하기

Q1. 교회가 아닌 곳(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Q2. 교회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해야 할까요?

말씀듣기

오늘 본문의 앞 13장은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다스림과 법칙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 안에서 세상의 다스림과 법칙에 복종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섭거나 두려워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세상의 다스림에 충실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웃(세상)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빛의 갑옷을 입고 모습을 단정히 하여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14장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형제자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자매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음을 고민하고 말하며, 마음에 걱정과 근심 없이 내 마음을 지키도록 기도하며,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는 동안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의 다스림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사는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1/26-12/2
4주 가정예배

부활의 소식을 믿으며 살아가요!

고린도전서 15:10,12,20,58

이달의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23P

말씀읽기 - 고린도전서 15:10,12,20,58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생각하기

Q1. 우리 가정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잘 믿고 있나요?

Q2.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듣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준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바울이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고린도교회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절대 다시 살아날 수 없고,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며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을 한 번 더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죽으셨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믿고,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죄지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들과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메모 MEM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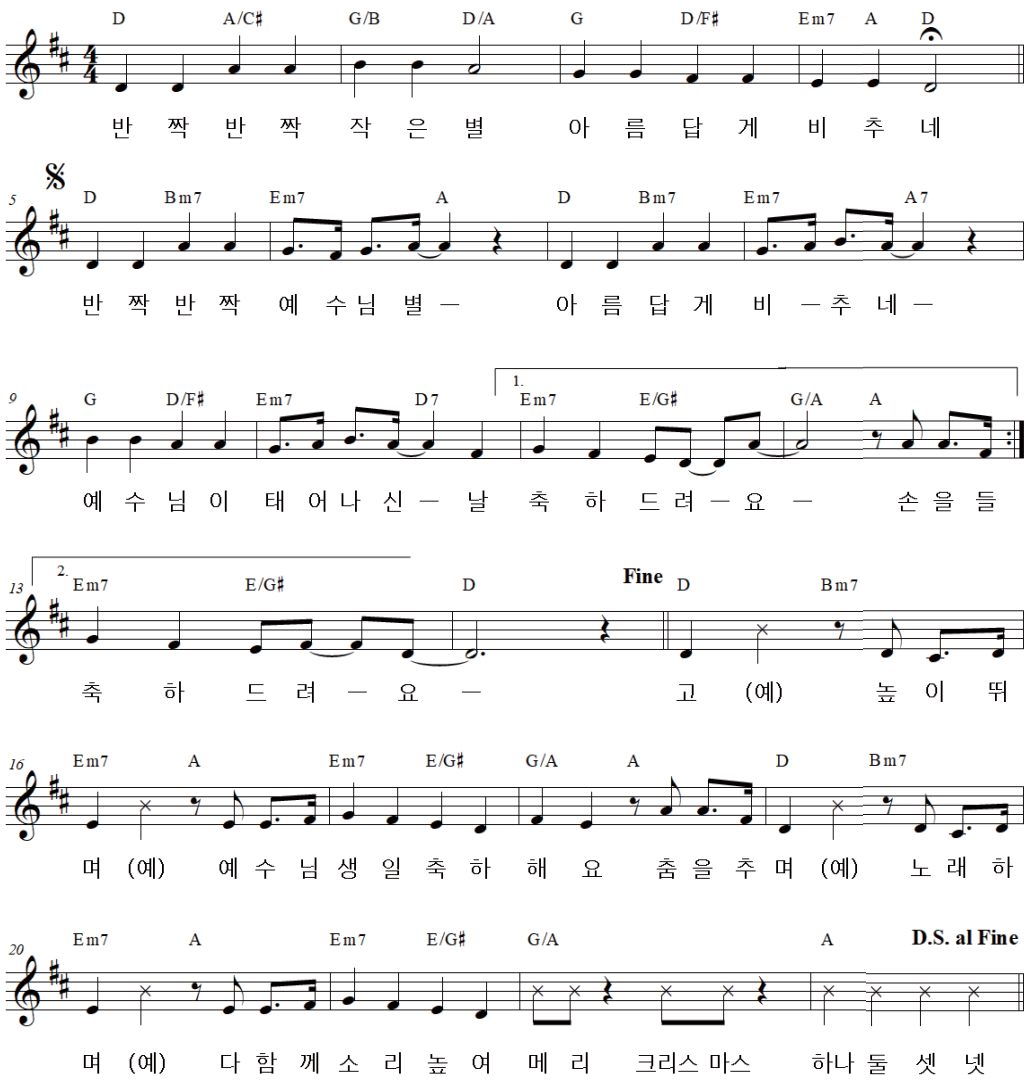
12 DECEMBER

일-sun	월-mon	화-tue	수-wed	목-thu	금-fri	토-sat
					1	2
3 대림절 1주	4	5	6	7	8	9
10 대림절 2주	11	12	13	14	15	16
17 대림절 3주	18	19	20	21	22	23
24 대림절 4주	25 성탄절	26	27	28	29	30
31						

이달의 찬양

반짝반짝 예수님별

QR코드: QR코드를 찍으시면 해당 찬양의 유튜브 페이지로 접속 가능합니다. 찬양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12/3-9
1주 가정예배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6-7

이달의 찬양 〈반짝반짝 예수님별〉 35P

말씀읽기 - 갈라디아서 4:6-7

0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0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생각하기

Q1. 하나님께서 나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Q2.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말씀듣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멋지게 세상과 사람(아담과 하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간교한 뱀은 그 열매를 먹더라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결국, 사람(아담과 하와)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교만으로 인해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산에서 쫓겨났고,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약 1:15." 이 말씀처럼 죄가 죽음(하나님과의 단절)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욕심과 교만,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증표인 가죽옷을 입히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고요 3:16,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루어가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2/10-16
2주 가정예배

하나님의 위로

데살로니가 후서 2:16-17

이달의 찬양 〈반짝반짝 예수님별〉 35P

말씀읽기 - 데살로니가 후서 2:16-17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17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생각하기

Q1. 어려운 일이나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나요?

Q2. 우리 가정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말씀듣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낙망하고 슬퍼하여 헛헛한 마음으로 쓰러져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가르침과 이단 사상에 흔들리거나 유혹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진정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소망하며 성령을 따라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이 확장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는 날마다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적극적으로 게으름과 무질서를 물리쳐야 합니다. 이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평강의 손길을 보다 깊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대림절을 보내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2/17-23
3주 가정예배

가장 중요한 사실

히브리서 8:1

이달의 찬양 〈반짝반짝 예수님별〉 35P

말씀읽기 - 히브리서 8:1

01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생각하기

Q1. 요즘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Q2. 어렵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말씀듣기

혹시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운 적이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교회 다니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는 예수님을 믿으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히 8:1. 히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겹지만,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능력자이시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힘들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더욱 붙들자고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우리 가정이 문제와 상황보다 크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욱 붙들며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가정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 삶이 어려울 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어려움을 이기는 우리 가정되게 해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2/24-30
4주 가정예배

깨끗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1:8-9

이달의 찬양 〈반짝반짝 예수님별〉 35P

말씀읽기 - 요한일서 1:8-9

08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0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생각하기

Q1. 죄란 무엇일까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Q2.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 용서에 대한 세상의 방법과 교회의 방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말씀듣기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 3:10)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고, 천국이 아닌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착한 일도 해보고, 율법을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공한 척했을 뿐,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대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

하나님. 우리는 매일 죄를 지으며 삽니다.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없앨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지워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받게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가족 기도제목을 적어보세요

12/31-1/6
5주 가정예배

이기는 자가 받는 상속

요한계시록 21:4,6,7, 22:1,2

이달의 찬양 〈반짝반짝 예수님별〉 35P

말씀읽기 - 요한계시록 21:4,6,7, 22:1,2

21: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0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07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0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각하기

Q1. 올 한해 나의 믿음의 경주는 어땠나요? 한 해를 돌아보며 나눠보세요.

Q2.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눠보세요.

말씀듣기

2023년 올 한 해 믿음의 경주 잘 달렸나요? 아마 여러 가지 일이 삶에 가득했을 겁니다. 우리네 사회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튀르키예와 모로코의 지진, 리비아의 홍수, 갑작스럽게 많이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 서이초 사건과 같이 교권 추락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소식 등이 있었지요. 이런 사회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로마제국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반대되는 일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로마제국의 문화를 따라가며 로마제국이 주는 돈을 받아야 할지, 적어도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갈등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러 너희를 향해 오고 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받으며 내 자녀가 될 것이니,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

러시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질서인 평화를 깨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과 편리함을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한 영혼이 귀한데 우리들은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무시했고, 무시당해 쌓인 분노는 애먼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 자신의 아이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다가 선생님을 사지로 몰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고 로마의 질서가 커진 이 상황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자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할지 모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생명을 내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자연을 돌보기 위해 노력하지만 헛수고라며 조롱당할지 모릅니다. 모두가 잘 되기 위해 경쟁하는 가운데 넘어진 다른 사람을 챙기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아이가 피해 보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미련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몰아가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화평을 이루시고, 자연을 포함한 세상을 구원하시며, 모든 이를 소중히 여기셨듯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런 십자가를 지느라 우리 눈가에 맺힌 눈물을 친히 닦아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가정이 아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수를 먼저 흘려보내며 주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그 나라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년 한 해에도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이루어져 가도록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해주세요.

메모 MEMO

발행통권 | 38호
발 행 일 | 2023년 10월 1일
발 행 인 | 김운성
기 획 인 | 방덕종, 박홍준
편 집 인 | 양동욱
디 자 인 | 한수진
집 필 진 | 이영호, 신주현, 홍지연, 이종실
곽영진, 정창대, 장대성, 문주희, 심현석, 배정일, 권희주, 강하림, 김철환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 화 | 02-2280-0131
발 행 처 |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본 책의 내용은 무료 배부 됩니다. (www.youngnak.net)
책의 내용을 사용시 '영락교회 교회교육원 저작'임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